

보 도 자 료



- ◆ 2025. 7. 11. (금) 배포
- ◆ 총 3쪽 (본문 2쪽, 붙임 1쪽)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정지영 생명과학연구본부 책임연구원	☎ 032-760-5532
강민구 홍보실장	☎ 032-770-8631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	☎ 032-770-8637

극지연구소 정지영 박사, 제18회 여천생태학상 수상 여성 과학자 최초 수상...북극 토양 생태계 발달 규명 연구 성과 인정받아

-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는 연구소 소속 정지영 책임연구원이 제18회 여천생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.
- 여천생태학상은 기초생태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룬 차세대 생태학자를 표창하기 위해, 고(故) 여천 김준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사단법인 여천생태연구회에 기증한 기금을 바탕으로 2005년 제정됐다.
- 이번 수상은 여천생태학상 제정 이후 최초로 여성 과학자가 수상하는 사례로, 생태학 분야에서 여성 과학자의 위상과 과학적 기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. 정 연구원은 극지 생태 분야 전문가로, 북극 다산과학기지와 미국 알래스카, 캐나다 케임브리지베이 등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해 왔다.
- 대표적인 성과로는 빙하 후퇴 지역에서 천이* 초기 토양 생태계 발달 과정을 규명한 연구가 있다. 정 연구원은 토양의 나이뿐 아니라 기반암의 특성, 연안에서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물질, 빙하 녹은 물에 의한 교란 등도 토양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, 이 연구 결과는 2022년

국제학술지 "Geoderma"에 게재됐다.

* 천이(遷移, succession): 생물 군락이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뀌는 현상

- 이외에도 북극 온난화에 따라 나타나는 토양의 변화,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 툰드라 생태계 변화 연구 성과에서 업적을 인정받았다.

- 시상식은 17일(목)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제80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, 여천생태연구회(이사장 조강현, 인하대학교 교수)와 한국생태학회(회장 정철의, 안동대학교 교수)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.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,500만원이 수여된다.

- 정지영 책임연구원은 "북극 툰드라 토양 생태계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격려해 준 여천생태학상에 감사드린다.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초생태학의 발전과 북극 기후·생태계 변화 연구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"라고 소감을 전했다.

붙임1. 극지연구소 정지영 책임연구원 사진

